

동거녀·여중생 연쇄살해 30대 검거

실종 관련 경찰 조사 받은 후 6개월만에 또 범행... 초동 수사 허점

영암 앞바다 사체 발견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등 여성 2명을 살해·유기한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날 붙잡힌 용의자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동거녀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6개월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초동수사 허점과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2명 살해 용의자 검거=목포경찰청은 25일 여중생 등 여성 2명을 살해·유기한 자영업자 김모(33·전북 군산시·간강상해 등 전과 9범)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에 군산시 장미동 내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전모(15)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월 16일 목포시 상동 목포교육청 인근 도로에서 동거녀 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선착장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목포시 상동 K모텔에 투숙 중인 김씨를 검거했다.

○범행 과정=전남지역 D대학교 1년 중퇴 후 줄곧 유류주점 등에서 종업원 생활을 해온 김씨는 2년 전 목포의 한 다방에서 정씨를 만나 동거생활을 해왔다. 김씨는 정씨와 함께 군

산으로 옮겨 닭뿔집을 운영했으나 돈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정씨가 "수익금 중 2천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13일 오전 자신의 닭뿔집 종업원의 친구 여동생인 전모(15·중 3)양을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전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대형 이

불 가방에 사체를 넣어 바다에 던졌고, 시신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비해 보도블록을 이불 가방에 넣는 처치했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논란=목포경찰청은 지난 1월 23일 정씨의 실종사고를 최초 접수받았다. 이후 경찰은 정씨의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최후 통화자이자 동거남인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2월 초)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포·군산방면 주요도로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영암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간 것을 확인하고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최후 통화자이자 동거남인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2월 초)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목포경찰이 25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선착장에서 용의자 김모씨에 의해 피살된 동거녀 정모씨의 사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00만원의 진실' 치열한 법정 공방

강운태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속행된 무소속 강운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또 다시 증인들의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25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 3명이 출석했다. 증인로는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와 강 의원의 직접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S씨, S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김모씨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 의원의 유·무죄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서 증인 3명을 상대로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꼼꼼한 심문을 이어갔고, 필요할 경우 증인들 간 대질신문도 벌였다. 특히 A씨의 법정 증언 출석은 이번이 처

음이어서 A씨의 진술에 재판부와 검찰·변호인 측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면서 제보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또 최대 쟁점인 돈 전달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해 S씨와 김씨를 상대로 장시간의 심문을 벌였지만, 양측의 진술이 서로 팽팽하게 엮여 심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S씨는 "강 의원이 식당 탁자 밑으로 500만원이 든 노란 봉투를 맡겨주며 '열심히 도와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S씨가 사업 형편이 어려워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것"이라고 맞섰다.

S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진실'을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강 의원을 음해하기 위한 S씨의 거짓말'이라고 응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의원 부인 뒷돈 의혹 수사 확대

광주 기초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이 의장 선거에 출마한 기초의회 의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광주지검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의 부인 A씨가 광주 모 기초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특정 구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정을 토대로 관련자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기초의회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도 검찰이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처리된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기초의회 B 의원으로부터 '의장이 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으로 3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B의원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특히 금품 수수 과정에서 불거진 '제3자 개입설'이 사실상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가 다른 지방의원에게도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연한 작업이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

니원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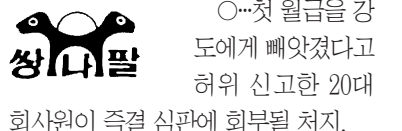
다 중년 건축·건설업체 KCC

(주) 금옥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취 및 상암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영업 : 061) 337-0571

돈 안값으려 "첫 월급 강도 당했다"



○"첫 월급을 강도에 빼앗겼다고 하니 신고한 20대 회사원이 즉결 심판에 회부될 처지.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9)씨는 지난 19일 밤 9시에 광주시 모 아파트 주변에서 "30대로 추측되는 남자에게 첫 월급 90만원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피해조사를 받았지만 범행현장 주변 상황 등과 피해 진술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수상이 여러 추궁한 끝에 허위신고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는 "최근 '백수'에서 탈출해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았지만 지인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돼 월급을 대신 출수밖에 없었다"며 "차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월급을 빼앗겼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허위신고를 한 뒤 수사가 진행되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눈물을 글썽.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자체 실수로 침수 피해" 민원 제기

"제조작업 풀이 배수구 막은 탓" 주장...광주 북구청 "자연적인 현상"

지난 8월 1시간에 최고 86.5mm의 기습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자체의 '실수'로 피해가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북사·인쇄업을 하는 A(36)씨는 지난 8월 1시간 만에 86.5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

면서 순식간에 가게로 밀려들어 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불과 2~3분 만에 50~60cm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며 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흥동에서 북사·인쇄업을 하는 A(36)씨는 지난 8월 1시간 만에 86.5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

면서 순식간에 가게로 밀려들어 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불과 2~3분 만에 50~60cm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며 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북구청에서 잔디를 정리하고 남은 풀을 버리지 않고 방치해두는 바람에 비가 내리면서 쓸러와 배수로를 막아 피해가 커졌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피해 상인들과 함께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북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풀이 배수로를 막은 것이 아니라 배수구가 막힌 탓"이라며 "배수구 막힌 것"이라며 "주책 피해의 경우 구청에서 보상할 수 있지만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에 공문을 보내 북구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종형기자 golee@

해의 골프여행 물의 빛은

광주시 간부 등 3명 징계

광주시는 사업체 임원진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었던 시 간부 등 3명에 대해 견책과 감봉 등 징계를 조치했다.

광주시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등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국장급 A씨와 과장급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시 산하 사업소 직원 C씨에게는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감사원은 이들이 청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광주시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금품·항응 접대받은

광주 서구의원 점유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25일 현수막 게시대 납품 알선을 대가로 업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원 김모(46)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상 서구청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 알선을 부탁하기 위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표:심 봉 규 (법원등록번호 18-07-29)

해령 법률경매

T:062)225-2685 H:P:011-605-7777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납지	감평가	최대가	
서울	강남	강남구 역삼동	254/98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93/155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229/282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270/277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55/46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363/259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39/144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228/150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82/174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83/180	192	192만	7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49/96	756	42만	8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31/144	936	42만	8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88/83	936	42만	8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59/11	936	42만	8천	
	강남	강남구 역삼동	131/38	936	42만	8천	
부산	부산	부산구 동래동	190/158	427	32만	6천	
	부산	부산구 동래동	181/82	628	62만	1천	
	부산	부산구 동래동	1108/282	2	192	7천	
	대구	대구	대구구 서구동	254/98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93/155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229/282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270/277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55/46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363/259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39/144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228/150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82/174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83/180	192	192만	7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49/96	756	42만	8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31/144	936	42만	8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88/83	936	42만	8천	
대구		대구구 서구동	159/11	936	42만	8천	
광주		광주	광주구 동구동	190/158	427	32만	6천
	광주	광주구 동구동	181/82	628	62만	1천	
	광주	광주구 동구동	1108/282	2	192	7천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제품**

SBS·KBC 『사람세상 방영』

가발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안가는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우호텔, 휴무(일요일) 정성영업) 무료전화 080-323-5858 E-mail:daesangabal.co.kr